

정축[1817(순조정축)-1961(신축)=145년전]2월에 문중 의논끝에 보첩문제를 밝히고자 2인을 선정 호증으로 보낼 때,나와 학능치교 종형이 그곳에 가게 되었다

대게 우리 아주신이 휘영미 이상은 보첩에 실전인데 ,세상에 전해지기를 아주는 평산 장절공으로 부터 나왔다고 하지만 믿을만한 증거가 없더라.일찍부터 들리는 소문에 공주 김노정의집에 만성보가 있다하여 영남지방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하였다.

교촌 거주 현성형이 율봉 정승 집정 당시 한번 가보고 싶었으나 성사되지 못하고,지난해 초겨울에 청주 이정 거주 족속 극조씨가 와서 보첩을 보이면서 이것은 김

노정소장 씨족원류와 성원총록 중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 하고,"장절공 13 세손인 시랑공이 처음 아주군으로 봉해져서 자손이 이로 인해 본관을 삼았다."하고 ,호장공 이하 관함(직위)배위 모두 세첩에 누락 되었으나 기타는 증거 될만하고,역시 믿을만한 곳이 많지만 신중해야 되는 데,명확한 곳이 없을 뿐 아니라 고찰할 만한 데가 없으므로,

이 달 10 여일 내에 날을 잡아 떠나려하는 때에 김이 공주로 부터 예산으로 우거 운운 하여,13 일 정해에 장대서원에 들러 숙박하고 14 일도 비가 와서 또 숙박하고 15 일 을축에 비가 그쳐서 아침 후에 집에 돌아온즉 학능형 부자분이 와서 기다리

고있어 오후에 바로 출발하여 도리원에 이르렀고,비를 무릅쓰고 가서 19 일에 문박촌에 도착하여 20 일에 성범의 집에 머물렀고,21 일에는 족속 대조씨와 함께 송곡으로 가서 족속 회조씨 댁에서 숙박했는데 송곡은 삼효자께서 살으셨던 곳이다.

24 일에 성범과 함께 출발 했다.27 일 노상에서 한 상주를 만나 김의 행선을물으니

늦가을에 정산으로 옮겨갔다 하니 깜짝 놀랄 일이며 행선을 알길이 없더라. 예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마산점에 문의한 즉 혹은 정산이라 하고 혹은 정양이라 하여 알 길이 없어서 마을에 내려와서 처음 들었든 대로 공주 갑파의 옛집으로

가기로 했다.

28 일에 김의 집으로 갔는 데 즉 갑파 아랫골 송현 아래 가흥리였다. 그 날 마침 회갑잔치라 손님이 와 잇는 데 성범을 먼저 들여 보냈더니 조금 잇다가 나와 작은 방으로 인도되어 내가 조용히 인사를 하고 찾아온 까닭을 구체적으로 말하니 김이 하는 말이 "이미 왔다 갔는 데 왜 또다시 왓느냐"하기에 "비록 전번 일만해도 믿을 수 있으나 금번은 내가 직접 보고 싶어서 왔을 뿐"이라고 하고, 학능이 "노인이 미리 보여준 선보는 극히 감격한 일이나 원컨데 다시 보여 줘서 어둡고 답답한 의문을 풀어 달라"하니

김이 성원총록, 씨족원류 두 책을 내놓고 하는 말이 "내가 소시에 보화에 관심이 있고 해서 경주 김씨 수보임원을 할 때 대왕대비가 명하기를 계보 문서를 멀리 찾고 근원을 소급해서라도 흔적을 빠짐없이 하라고 하여 착수 8 년동안 모두 찾아내어 보충하고 베껴 모아서 책을 만들었는데, 우리 동방에 보첩으로 출간된바 없든 문자를 내 스스로 완성 시켰다..고로 앞뒤로 계보를 잃은 가문에서 살피고 문의하여 서로 간에 계통을 잇고 혹은 폐물로 자못 후하게 예를 표하기에 이르더라

내가 이를 취하기 위해 살펴본즉 대계 전에 다녀간 사람들과 더불어 여러 부분에 잘못된 곳이 있어서, 성범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이는 과연 옛날 본바라". 성범도 "그렇다"고 했다. 그 말에 내가 "김의 말이 그 증거 의심되고 또 이는 반드시 원본이 잇을 터이니 청컨데 보여달라"하니 김이 말하기를 "내집에 고려시대 문서 100 여권 및 야승(民이 쓴 역사) 1 질이 잇는 데, 한번 더 오기 바내가 지금 몸이 불편하고 근심거리가 잇으니 다시 더 오기 바란다. 청주에는 귀 종인이 잇고 또 내가 근일에 감영에 찾아갈 예정이니 마땅히 그때 부쳐 주겠다"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이번 소중하고 먼 걸음의 목적이 여기에 있거늘 한자리에서 상고치 못하고 천라갈을 기피코 다시 와야겠느냐"하며, "청주도 이곳에서 이백여리니 감영행을 노인이 번득치 못하고, 또 만약 뒷날을 기약하고 돌아간다면 우리들은 뒷하는 사람이 되겠는가. 우리집 선계의 분파처에 대한 믿을만한 자취를 보지 못한다면 비록 한달을 유숙하드라도 기어코 얻고 난후에 떠날

것이니.원컨데 주인은 이 뜻을 굽이 살피고 하나하나 보여주기를 천만 바라노라"하니

김이 "금일은 실로 어려우니 내일은 어떠냐"하고,학능이 "사세 이와 같으니 그의 말을 따르자"하므로 내가 성범을 시켜 종지와 실과 및 돈 사백문을 전달케 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가난하고 멀리서 오느라고 물품을 갖추어 정을 표하지 못하고 노인의 한번 반찬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라"하니 김이 몇마디 말로 사양하지만 그 태도를 살펴 볼때 물리칠 뜻이 없는 것 같아 보이니 진실로 괴이하더라

내가 학능과 더불어 그 글의 범례와 규모를 두루 살펴보니 본시 조중운이 편찬한 것이 최고로 상세하게 알 수 있었다.신라 고려 이후 이조 세종 문종 조에 명가와 거족이 아울러 밝게 기재되어 잇고 심지어 배위와 묘소 기일 까지 혹 기재 또는 노략된 것이 사실과 학문으로 많이 증거 할 수 있고,기타 새로 소문을 듣고 본 사람은 모두 세밀히 기록을 해서 끼워 넣어서 과목 종류별로 취합해서 책을 만드니 그 평생 공들임과 비용이 적지 않더라.

임경창이 편찬한 성원,원류와 더불어 동일한 례가 상세히 약술된 것이 혹
다르고,새것과 옛것이 서로 섞여 기재되어 분파간 기록이 심히 많으니,정밀하게 살피는 자가 아니면 가히 생각 할 수 없거늘 ,김이 묻는대로 대답하여 막힘이 없으니 그 재질과 품성이 가위 뛰어나더라

이를 볼 때 옛날 족보에 이른즉 흡사 믿을 수 없는 이치가 없을 듯 하더라.날이 저문 대에 여장을 풀어놓은 숙소를 나와서 신대주점 김별장집에서 머무르니 저녁 때 대구 무태 사는 구씨 늙은이와 젊은 두사람이 역시 보첩일로 수원에서 부터 찾아 왔더라.

이날에이십리를 가니 밤에 가는 비가 오더니,29 일 그믐에 날이 맑게 개여 아침 일찍 김가집에 다시 갔다.김이전에 못보던 만성보 한권을 내 보이면서 "이는 성주 이순이 기록 한 것"이라고 하기에 옛날 계보를 살펴보니 별다른 것은 없고 오직 야승 일조목 십여자가 못본 것이라.

내가 말하기를 "이것은 원류의 지손이요 성원에도 벌써 나왔던 것이니 다시 상고 할 것이 없고.우리들이 보고 싶은 것은 오로지 분파승계처이니 고려시대 문서와 야승을 보여 달라"고 하였더니

김이 말하기를 "야승의 사적은 본조에서 꺼리는 바 많으니.내가 비록 죽음을 당하더라도 남의 안목을 번거롭게 할 수 없으며,가지고 있는 고려시대 문서는 책 내용이 광범위해서 하루 이틀에 가히 상고 할 수 없으니 노쇠한 내가 어찌 감당하리오

그대가 오래 머물기를 원한다면 내가 죽어서 묘의 나무가 아름답리가 되도록이라도 기다려야 하겠다"하니,그 말이 점점 거짓말 같고 더욱이 사람에게 불안감을 주더라"

내가잠자코 겸손한 말로"주인의 일생정력이 모두 여기에 있고 하니,이는 타인을 위함이 아니오.실로 박학다식한 일단이니 혹시 여가를 주신다면 우리들로 하여금 그 증거를 밝혀서 고마움을 새길 수 있도록 해 주는것이 어떨것느냐,만약 한 가닥이라도 보여주고,다만 이대로 사양한다면 이는 처음부터 보학을 알지 못하는 자와 무엇이 다르리요.원컨데 보여달라"하니

김임 말하기를 "내가 모아서 기록한것이 여기에 과반이 추가로 기록되었고,서법이 같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여 혹자는 남몰래 암기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그러나 자랑하 선비를 칭하는 자 어찌남의 보첩을 조작해서 사람을 속이고 스스로자랑하리오.전에 호남인이 폐물을 많이 가지고 오고,영남인이 와서 서로 계통을 잇기도 하였다"고 말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물품을 보내고,어떤 집안은 어떤 건을 끼쳤다 하니 대개그 집이 심히 가난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생계를 삼는 듯하다.

내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주인이 자기의 죽음으로 맹세하니 우리들은 다시정하기는 어렵기는 하나 ,청컨데 선배본적을 상세히 밝혀 달라"고 하니,김이 집어들어 보이나 그 필적과 새 책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곳이 잇기에,"이런곳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내가 물은 즉 김이 말하기를 "아마 전사하는 데 오류일 것이요.또 집집이 파보가 산재하고 글이 뒤바뀔 수 있는 데,어찌 하나하나 서로 맞춰 볼 수 있나"하고 "내가 조만간에 영남감영에 가서 사람들 시켜서 등사한 한부를 그대들에게 제공하면 상고 도움이 되게 할 터이니 내 말을 실로 사양하지 않기를 바라노라"

내가 "만약 그대 말인즉 나 역시 사양하지 않으나 그러나 노인의 행차가 과연 말한대로 편안히 다녀올 수 있을지"하니 "꼭 그렇지 않다"고 거듭 강조 하더라.내가 학능에게 "우리들이 삼천리 길을 멀다하지 않고 재를 넘어와서 믿을 만한 흔적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니 선령에게 죄를 짓게 되었고 세인의 웃음거리가 되니 주인 노인께서 실로 바라는 바는 아녜만 이 문을 한번 나가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인사하고 나가니 성범이 "좀 더 기다라지 않느냐"하므로 내가 "그대는 그 집에 야승과 고려시대 문서가 진정 있다고 보느냐 나는 없다고 본다"하니 성범이 "아찌 아느냐"하므로 내가 "공민왕때 흥건적이 송경을 불태우고 왜적이 강산을 침노해서 오백년 전적과 유적이 탕진되어 없어지니 어찌 전부 존재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보기에 성원총록과 고려시대 문서가 가사 일부 있다 하드라도 공신록과 호구단자가 하나 같이 의심스럽게 된 것 같이 이미 벌써 이루어졌다고 보이고,역시 가하 십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혁명 초에 야승을 수집하기 위하여 사무를 개국했으나 헛된 야사와 소문이 나타나지도 가라앉지도 않는 이때에 동국통감 고구려사강목 유시남제강목 정하동기전에 각각 기재되어 있다하고 ,기타는 비록 혹시 일부 비장의 문서가 있다 하드라도 그것을 소장하고 있는 자는 김이니 그것을 능히 다 볼 수 있도록 사사로이 두겠는가 또 야승의 그 기재된 내용이 반드시 생졸과 사실 뿐이요 배위와 기일을 사가들이 무슨 연고로 다 기재 하겠는가

노인이 이미 죽음을 걸고 말했으므로 비록 일년을 유숙 하드라도 보일리가 없을 터이니 여인숙에 체류한들 어찌 유익 하겠는가.내가 보는 소견으로는 김이 성원 원류 서적 두권을 신빙의 자료를 삼아 폐물을 제공케 하여 이것으로 생계를 의지하고,또 은연중 고금의 기이한 문서를 슬쩍 보여서 사람을 유혹 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원근에소문을 퍼뜨려 찾아오게 하니,이는 자기의 전후량 계책인 것 같다.이는 흡사 패철을 가진 지사가 정혈을 탐색하려는 두기 심리를 내 이미 옛 보았다.그러니 이번 선보를 생각 할 때 믿는자는 많으니 그곳을 인하지 않고는 못 보는 자

그곳을 의심해서 보는 바이니, 우리들이 의심하는 예를 전해서 후인을 기다리니 학능은 어떻게 생각 하느냐"고 말하자"내 뜻도 진실로 그렇다"하고,성범도"형의 말이 이치에 맞다"해서 서로 꺄꺄 웃었다.

오후 귀가길에 주점과 하천을 여러번 통과하고 명당동 앞에 이르렀을 때 학능이 "주막 김별장이 말하기를 이가역의 집에도 역시 만성보가 있다하니 "가보자"하므로,일행을 찾아가보니 그는 벌써 별세하고 아들은 상을 입고 있었다.그이 소장 보본에 의한즉 먼 대수는 처음부터 알 수 없고 가까운 대수는 즉 김씨것과 비교 할 때 아주 상세 하였다.

이씨는 초려공 유태의 후손인데 연소하나 사랑스럽고 김노정에게 관해 말하기를 "그가 가지고 있는 보첩에 관한 비밀의 시종을 타인이 믿어줄 사람이 얼마나 될자"운운 하더라.自 3月朔日至 12 일 대략 13 일에 귀가하니 저녁때라 대계 금번 행차가 출발부터 不獲한 일이라 선보에 대해 생각해 보면 장차 믿음이 오직 의심 될 뿐이니 마땅히 양파가 합의해서 신중히 처리할 소행리라.무릇 일천구십리 행차였는데 삼월을 바라보면서 도야가 쓰노라